

“축구협 정몽규 회장 OUT...대표팀 감독 다시 뽑아라”

문제부, 축구협회 감사결과 통보...위법·부당 사안 27건 확인 정몽규 등 3인 자격정지 이상 요구·감독 2개월 내 다시 선임해야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국가대표 사령탑 선임 절차를 규정대로 다시 밟으라고 주문했다.

다만 협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의식했는지, 홍명보 감독의 해임·교체나 정 회장 하야 등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협회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최현준 문제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27건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 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

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최 감사관은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축구협회가 공적인 단체인 만큼 공무원 징계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최종 판단의 몫을 협회의 공정위원회에 돌렸다.

다음은 최 감사관과 일본일담.

-자격 정지 이상 중징계의 뜻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서다. 누구보다 협회 규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는데,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스스로 개입했다. 사면 규정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사면 규정을 폐지했고 이를 안내했는데도 무시하고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징계가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거다. 현재 규정이 문제부가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공정위가 판단하게 돼 있다. 이번엔 협회가 국민의 눈높이,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두번째줄 가운데) 감독. /연합뉴스

않는다면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활용할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월드컵 예선 중인데 감독에 대한 조치는 현재 입장을 얼마나 고려한 것인가.

▲관한이 없는 인물에 의해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됐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에 협회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말씀드렸다.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선택지가 있을 텐데 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FIFA가 협회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한 요구는 어

떻게 고려했나.

▲이번 감사 목적은 축구협회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한 것이라 FIFA 정책에 전혀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오히려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협회가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 하는 걸로 FIFA가 이해하는 걸로 안다.

-공정위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부가 활용할 정책 수단에는 어떤 게 있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감사를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등 부족하게 이행되면 감독 부처인 체육국에서 나설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겠

다.

-홍명보 감독 재선임과 관련, 2개월 내 진행해 다시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2개월 안에 새 감독을 뽑으라는 뜻인가.

▲규정상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정을 조정해서 계획을 문제부에 제출하면 괜찮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정몽규 회장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건 감사 범위도 아니고 초점도 아니다.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알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전국 등산대회 여대부 1위

남대부·목포해양대 등 입상

광주·전남 학생 산악인들이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에서 활약하며 다수 입상했다.

지난 2·3일 영암 월출산 일원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연맹 100여개 팀·5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3인 1팀’으로 출전한 참가자들의 운행 능력·산악 도도·등산 상식·기초 암벽등반·매듭법·산악안전 등 이론과 실기를 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개 팀이 나선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은 각각 여대부 1위와 남대부 2·3위에 올랐고, 목포 해양대산악회가 남자일반부 3위를 기록하며 전남 도산악연맹의 종합 2위를 합작했다. 대회 종합 우승은 울산산악연맹이 차지했다.

여대부 우승을 이끈 김서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학생위원장은 “휴대폰이나 GPS 장치 없이 나침반과 종이지도만으로 길을 찾는 독도법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었다. 팀전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잘해서는 안 된다. 팀 막내인 (김)슬기가 잘해준 공이 크다”며 “많은 지원해주신 연맹 이장님 회장님 광주전남등산학교 정우현 이사장, 이정주 강사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 우승은 ▲남자 장년부 현대자동차산악회 나팀(울산) ▲여자 장년부 아우디(대구) ▲남자 일반부 대구야구아카데미(대구) ▲여자 일반부 한우리산악회(울산) ▲남자 대학부 독한남자들(부산) ▲남자 고등부 한양공고B팀(서울) ▲여자 고등부 계성고(대구)가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네이마르, 복귀 2경기 만에 또 쓰러졌다

햄스트링 통증으로 교체

지난해 10월 무릎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1년여 만에 돌아온 ‘슈퍼스타’ 네이마르(32살 할랄)가 복귀 2경기 만에 다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통증으로 교체되는 악재를 만났다.

알힐랄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덤 아레나에서 열린 에스테그랄(이란)과의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4차전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한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의 원맨쇼를 앞세워 3-0으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알힐랄은 ACLE 리그 스테이지에서 4연승을 거두며 알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승점 12)와 승점을 갈아챘으나 골 득실에서 앞서서 아시아지역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알힐랄은 승리의 기쁨보다 네이마르의 몸 상태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알힐랄은 2-0으로 앞서던 후반 13분 벤치에서 대기하던 네이마르를 교체로 투입했다.

네이마르는 지난달 22일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아인과의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에서 벤치 멤버로 대기하다 후반 32분 교체로 출전하며 무려 369일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18일 우루과이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왼쪽 무릎을 다친 네이마르는 그해 11월



네이마르가 지난달 22일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 알아인과의 경기에서 공을 컨트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판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수술을 받고 긴 재활에 들어갔다.

오랜 재활을 이겨낸 네이마르는 지난달 팀 훈련에 합류했고, 알아인전을 통해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네이마르는 이날 에스테그랄전에서도 벤치 멤버로 대기했고, 후반 13분 교체 투입돼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출전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후반 42분께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으려고 오른쪽을 쭉욱 내민 이후 허벅지 뒤쪽을 잡고 불편함을 호소하다 그대로 교체됐다.

네이마르는 이날 29분만 뛰고 다시 벤치로 돌아갔다. /연합뉴스

고흥 ‘우주항공기 공도대회’ 성황리 마무리



전남 고흥 봉황정에서 ‘제20회 우주항공기 공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흥군공도협회와 고흥 봉황정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23개 정과 1500여 명의 공도인이 참가해, 2일부터 4일까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실력을 겨뤘다.

단체전에서는 전남 강진군 양무정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고흥 흥무정이 준우승, 고흥 영주정이 3위를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장년부 이근영(무안 송덕정), 노년부 권덕명(동해 동덕정), 여자부 고안나(고창 모양정), 실업부 이병석(익산 송백정)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민족 고유 의 전통무예인 공도는 지정명칭 ‘활쏘기’로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됐으며, 광주·전남에는 총 49개(광주 5개, 전남 44개)의 정(활터)이 공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미래 국대 골키퍼 키운다”... ‘전남 GK클리닉’ 성료

초·중·고·대학부 골키퍼 상대...편칭·전술 빌드업 등 전수

전남도 내 초·중·고·대학부 골키퍼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전남 GK클리닉’이 최근 보성에서 진행됐다.

대한축구협회와 전남축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각 학교 또는 클럽에서 전문적인 골키퍼 훈련을 받을 수 없었던 선수들에게 멘토링

을 통해 엘리트 골키퍼로서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25명의 전남 골키퍼들은 이번 행사에서 김범수 전 여자축구 국가대표 코치, 유현(전 수원FC), 박완선·주정우(전 광주FC) 등 유명 코치 및 선수 출신 멘토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훈련은 초·중·고·대학부로 구분해 수준별로 진행됐으며 참가 선수들은 다이빙, 편칭, 킥을 비롯한 기본기훈련과 골킥을 통해 활용 가능한 전술 빌드업 등을 배웠다.

이행중 전남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선수·학부 모두의 큰 호응과 뜻해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jinggi@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광주공연마루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